

##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Parenting Behavior  
i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of Early School-Aged Children\*

엄은주(Eun-Ju Eom)<sup>1)</sup>

박보경(Bo-Kyung Park)<sup>2)</sup>

도현심(Hyun-Sim Doh)<sup>3)</sup>

Ryo Nishiwaki<sup>4)</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parenting behavior i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of early school-aged children. A sample of 166 Korean mothers and 112 Japanese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First, in terms of results, Korean mothers reported higher scores in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warmth and neglect than Japanese mothers did. In contrast, Japanese mothers scored higher on intrusiveness than

\* 본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0-C00001).

\* 본 논문은 2013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sup>3)</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sup>4)</sup>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y Studies, Nanzan University, Japan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Korean mothers. Second, for both groups,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warmth and reasoning, and positively related to intrusiveness, coercion, and neglect. Third, for both group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was positively linked to warmth and reasoning, and negatively linked to intrusiveness, coercion, and neglect. Fourth,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for both groups. Finally,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medi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warmth for both groups. Only in the case of Korean mothers did parenting stress influence reasoning and intrusiveness through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re may indeed be cross-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ree parenting-related variabl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Keywords** : 한국 어머니(Korean mothers), 일본 어머니(Japanese mothers),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 I. 서론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환경이자 자녀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로,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해나간다. 특히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주양육자로서의 어머니는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Ha & Park, 2012; Jang & Kim, 2011; Kim & Moon, 2005; Lee, 2008; Lee & Lee, 2012; Lee, Park, & Choi, 2010; Yoon & Cho, 2011).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의 경우 학령 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보다 더 집중되어 있어(Kim, 1999; Park, Choi, & Park, 2002; Son & Park,

2011), 학령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Kim & Chang, 2013; Shin & Chung, 1998). 학령 초기는 아동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서 새롭게 맞이하는 역할과 기준에 적응해야 하므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우며(Jung & Chi, 2006; Kim, 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령 초기 자녀의 유능감이나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Ko, 2003; Lee & Chung, 2008). 이에,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어머니의 적절한 양육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인지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중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변인들이다(Gondoli & Silverberg, 1997;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Sanders & Woolley, 2005; Suchman &

Luthar, 2001).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짜증이나 좌절, 화, 고통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Crnic & Greenberg, 1990), 이러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주요한 생활사건(life event)보다 개인의 심리적 안녕이나 적응을 보다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 양육효능감은 어떤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 즉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기초하여(Bandura, 1982) 이를 자녀양육 맥락에 적용한 개념이다. 즉,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가 지각하는 유능성이나 자신감을 의미하며,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만족감을 모두 포함한다(Johnston & Mash, 1989).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부모는 자신이 속한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에 따라 자녀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다. 즉, 문화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나 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Bronfenbrenner, 1979). 문화에 따른 차이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동양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는 서양 문화권 간(Keller, Abels, Borke, Lamm, Lo, Su, & Wang, 2007; Lee, Lee, & Kim, 2008; Lin & Fu, 1990; Park, 2011; Park, 2012; Wu, Robinson, Yang, Hart, Olsen, Porter, Jin, Wo, & Wu, 2002)이나 동일 문화권 내의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Kim & Kim, 2011; Lai, Zhang, & Wang, 2000; Lee & Choi, 2007; Pham, Lee, & Shin, 2007; Russell, Hart, Robinson, & Olsen, 2003). 후자와 관련하여, 동일 문화권 내에서 유사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문화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그 선행 변인인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을

중국 혹은 연변 조선족과 비교하는 국내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Diao, 2011; Jin & Jang, 2013; Ok, Chung, Chun, Hwang, & Chi, 2006; Ren & Hyun, 2002; Zhang, 2011). 반면에, 동북아시아의 또 다른 주요 국가인 일본과 이러한 변인들을 비교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국과 일본은 둘 다 집단주의 및 유교 문화권에 속하며, 최근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맞벌이가족이 증가하며 출산율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유사점이 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두 국가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양육 관련 비교문화연구들은 심층적으로는 양국 간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부모들은 일본 부모들보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삶의 보람을 더 많이 느끼고(Kang, 2005), 자녀와의 친밀성이 보다 높은 반면(Hyun, 2005), 일본 부모는 한국 부모보다 부모의 권위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Koo, 2012). 이와 같이 양국에서 나타나는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의식에서의 차이는 양육 관련 변인들에서의 양국 간 차이를 가정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비교한 선행 연구들은 드문 편이며, 그 결과도 다소 일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 어머니는 일본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양육충족감과 양육당혹감은 낮게, 부모부적격감은 높게 지각하였다(Tarami, Minami, & Lee, 2004). 이와 달리, 양국 어머니들 간에 양육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보고된다(Shimizu, 2004).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관련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한국 어머니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 이민자 어머니보다 양육효능감이 높았으며(Choi, Kim, Ryu, Chang, & Park, 2012), 일본 어머니는 미국 어머니보다 양육효능감이 낮았다(Suzuki, Holloway, Yamamoto, & Mindnich, 2009). 또한, 한국 아동이 일본 아동보다 어머니의 민주·자율적 행동은 높게, 불안·복종적 행동은 낮게 지각한 연구(Jeong, 1992)와 상반되게 한국 어머니가 일본 어머니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는 덜 보이고 통제적인 태도는 더 많이 취한다는 연구(Lee & Choi, 2007)도 보고된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비교문화연구가 매우 드물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양육스트레스가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Abidin, 1990)에서, 연구자들은 양 변인 간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Iwatate & Kurata, 1995; Kim & Moon, 2005; McLoyd, Kaplan, Hardaway, & Wood, 2007; Nakaya & Nakaya, 2006; Shin & Chung, 1998; Son & Park, 2011; Suchman & Luthar, 2001). 국내의 경우,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Kim & Doh, 2004;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Park, Jun, & Han, 1996; Park & Ko, 2003; Shin, 2011),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Shin과 Chung (1998)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다.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학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수행을 요구받게 되고, 그로 인해 자녀의 학업성취,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정립, 학교생활 적응 등과 같은 양육스트레스를 새롭게 겪게 될 수 있다(Kang, 2003).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의 또 다른 인지적 측면인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Ahn & Park, 2002; Choe, 2006; Gondoli & Silverberg, 1997; Kim, Doh, Shin, & Choi, 2013; Mondell & Tyler, 1981; Moon, 1999; Sanders & Woolley, 2005; Tasaka, 2003). 국내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몇몇 연구들(Choe, 2006; Shin & Chung, 1998)을 제외하고는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Ahn & Park, 2002; Kim & Doh, 2004; Kim et al., 2013; Kim & Lee, 2011;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Moon, 1999).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인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의 중요한 선행 요인임을 밝히는 것으로, 아직까지 연구가 부진한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에도 양자 간의 관계가 발견되리라 가정할 수 있다. 더구나 자녀가 성장·발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Song & Kim, 2008)를 통해 부모로서의 자신감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인지적 측면들인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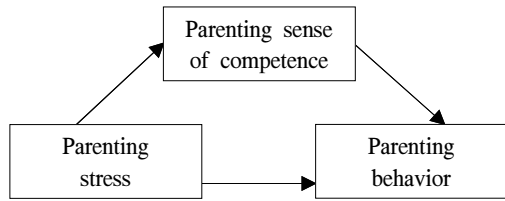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에도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Dunning & Giallo, 2012; Ha & Seo, 2010; Kim & Doh, 2004; Scheel & Rieckmann, 1998; Seo, 2004; Yamasaki, Iriyama, Hamasaki, & Honda, 2010; Yi & Choi, 2010). 국내의 경우,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몇몇 연구들 (Choe, 2005; Shin & Chung, 1998)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와 유사하였다(Ahn & Park, 2002; Ha & Seo, 2010; Kim & Doh, 2004;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Ryu, Kim, & Song, 2009; Song & Kim, 2008; Song, Song, & Kim, 2007; Yi & Choi, 20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리라 가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정은 양육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인 양육기술 유능성(parenting skills competencies)과 같은 자원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 연구(Abidin, 1992)에 근거한다.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관심을 가진 국외 연구들은 어머니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고통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양육효능감이 매개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Gondoli & Silverberg, 1997; Teti & Gelfand, 1991).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를 살펴본 국내 연구들에서도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Ahn & Park, 2002; Kim & Doh, 2004;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Shin & Chung, 1998; Yoon & Cho, 2011).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국내 연구들은 Shin과 Chung(1998)을 제외하고는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Ahn & Park, 2002; Kim & Doh, 2004;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Yoon & Cho, 2011),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발견되는지 탐색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관련된 비교문화연구들은 대부분 각 변인에서의 문화적 차이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Jeong, 1992; Ren & Hyun, 2002). 한국과 연변 조선족 조부모-손자녀 가족의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Ok et al., 2006)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 한국 조부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발견된 반면, 연변 조선족 조부모의 경우 어떠한 유의한 상관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육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에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와 같이 유사한 문화권 내에서도 각 문화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 어머니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Figure 1)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parenting behavior i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을 동일한 동양 문화권 내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양국 간 차이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 <연구문제 1>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 어머니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한국과 일본 어머니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인천시와 일본 나고

야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자녀를 둔 166명의 한국 어머니들과 112명의 일본 어머니들이다. 학령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아동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며(Jung & Chi, 2006), 어머니 또한 새롭게 학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녀와 어머니 모두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 참가자는 각 국가에서 약 250만 명 안팎의 인구로 구성된 대도시들 중 하나인 인천시와 나고야시의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립 초등학교로부터 표집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변인들인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직업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아버지의 교육수준:  $\chi^2 = 4.19, p > 0.5$ , 아버지의 직업:  $\chi^2 = 3.96, p > 0.5$ ).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한국의 경우,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71명(42.8%), 여아가 95명(57.2%)이고, 학년은 1학년이 37명(22.3%), 2학년이 72명(43.4%), 3학년이 57명(34.3%)이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116명(69.9%), 둘째가 44명(26.5%), 셋째가 4명(2.4%)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35~44세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127명(76.5%)과 135명(81.3%)이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120명(72.3%)과 141명(84.9%)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가 84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경우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278)

Variables	Korean (n = 166)	Japanese (n = 112)	Variables	Korean (n = 166)	Japanese (n = 112)
<b>Child's gender</b>			<b>Child's grade</b>		
Boys	71(42.8)	57(50.9)	First grades	37(22.3)	48(42.9)
Girls	95(57.2)	55(49.1)	Second grades	72(43.4)	35(31.3)
			Third grades	57(34.3)	29(25.9)
<b>Child's birth order</b>			<b>Monthly family income</b>		
Firstborns	116(69.9)	75(67.0)	Less than 4 million won (Less than 0.4 million yen)	4( 2.4)	5( 4.5)
Second child	44(26.5)	36(32.1)	4 to 8 million won (0.4 to 0.8 million yen)	76(45.8)	33(29.5)
Third child	4( 2.4)	0( 0.0)	8 to 12 million won (0.8 to 1.2 million yen)	46(27.7)	18(16.1)
Fourth child and over	0( 0.0)	1( 0.9)	More than 12 million won (More than 1.2 million yen)	28(16.9)	30(26.8)
Missing	2( 1.2)	0( 0.0)	Missing	12( 7.2)	26(23.2)
<b>Mother's age</b>			<b>Father's age</b>		
Under 35 years	24(14.5)	9( 8.0)	Under 35 years	2( 1.2)	7( 6.3)
35~39 years	84(50.6)	37(33.0)	35~39 years	50(30.1)	31(27.7)
40~44 years	43(25.9)	43(38.4)	40~44 years	85(51.2)	42(37.5)
Over 45 years	13( 7.8)	20(17.9)	Over 45 years	29(17.5)	30(26.8)
Missing	2( 1.2)	3( 2.7)	Missing	0( 0.0)	2( 1.8)
<b>Mother's educational level</b>			<b>Father's educational level</b>		
Middle school	0( 0.0)	1( 0.9)	Middle school	0( 0.0)	0( 0.0)
High school	15( 9.0)	3( 2.7)	High school	7( 4.2)	3( 2.7)
College	28(16.9)	38(33.9)	College	17(10.2)	6( 5.4)
University	96(57.8)	63(56.3)	University	94(56.6)	76(67.9)
Graduate school	24(14.5)	7( 6.3)	Graduate school	47(28.3)	27(24.1)
Missing	3( 1.8)	0( 0.0)	Missing	1( 0.6)	0( 0.0)
<b>Mother's occupation</b>			<b>Father's occupation</b>		
Inoccupation or housekeepers	84(50.6)	68(60.7)	Inoccupation or housekeepers	0( 0.0)	0( 0.0)
Employees in manufacturing supervision or service industries	3( 1.8)	2( 1.8)	Employees in manufacturing supervision or service industries	1( 0.6)	0( 0.0)

〈Table 1〉 Continued

(N = 278)

Variables	Korean (n = 166)	Japanese (n = 112)	Variables	Korean (n = 166)	Japanese (n = 112)
Owner-operators or sales representatives	9( 5.4)	8( 7.1)	Owner-operators or sales representatives	30(18.1)	16(14.3)
Office workers or security workers	4( 2.4)	3( 2.7)	Office workers or security workers	0( 0.0)	0( 0.0)
Company workers, bankers, or public officials	29(17.5)	11( 9.8)	Company workers, bankers, or public officials	50(30.1)	31(27.7)
Professionals	25(15.1)	13(11.6)	Professionals	48(28.9)	36(32.1)
Company owners 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3( 1.8)	4( 3.6)	Company owners 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34(20.5)	24(21.4)
Et cetera	2( 1.2)	2( 1.8)	Et cetera	3( 1.8)	4( 3.6)
Missing	7( 4.2)	1( 0.9)	Missing	0( 0.0)	1( 0.9)

Note: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percent.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50명(30.1%)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은 400~800만원 미만 이 76명(45.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800~1200만원 미만이 46명(27.7%)이었다. 일본의 경우,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7명(50.9%), 여아가 55명(49.1%)이고, 학년은 1학년이 48명(42.9%), 2학년이 35명(31.3%), 3학년이 29명(25.9%)이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75명(67.0%), 둘째가 36명(32.1%), 넷째 이상이 1명(0.9%)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35~44세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80명(71.4%)과 73명(65.2%)이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70명(62.6%)과 103명(92.0%)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가 68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경우 전문직이 36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은 40~80만엔(한화 약 400~800만원) 미만이 33명(29.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120만엔(한화 약 1200만원) 이상이 30명(26.8%)이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일본 어머니들을 위한 척도는 번역-역번역(back-translation)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일본어 번역은 연구와 관련이 없는 독립된 전문가 1인이 수행하였고, 역번역은 본 연구자들 중 한 명이 담당하였다. 이후 일본어 전문가 1인과 본 연구자들이 번역된 문항과 원 문항 간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Kim(2008)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부모의 고통(12문항),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 등의 세 가지 하위요인(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예를 들면, 부모의 고통은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어 있는 느낌이 든다.’ 등의 문항을,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때때로 우리 아이는 나를 짓궂게 괴롭히려는 일들을 한다.’ 등의 문항을,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우리 아이는 대체로 아침에 불쾌한 기분으로 일어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위요인들을 모두 합하여, 단일 요인으로 처리하였다. 통계적으로도, 하위요인들을 모두 합한 양육스트레스 전체의 신뢰도가 적절할 뿐만 아니라,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가 높은 편이어서(한국:  $r = .34 \sim .67, p < .001$ , 일본:  $r = .48 \sim .62, p < .001$ ), 이러한 처리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 시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모두 .92이었다.

##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Kim(2008)이 변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부모효능감(8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불안을 측정하는 부모불안감(9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예를 들면, 부모효능감은 ‘나는 초보 어머니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배울만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등의 문

항을, 부모불안감은 ‘부모라는 역할 때문에 나는 긴장되고 불안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부모불안감을 역채점한 후 하위요인들을 모두 합하여, 단일 요인으로 처리하였다. 통계적으로도, 하위요인들을 모두 합한 양육효능감 전체의 신뢰도가 적절할 뿐만 아니라,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가 높은 편이어서(한국:  $r = .58, p < .001$ , 일본:  $r = .33, p < .001$ ), 이러한 처리는 적절해 보인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효능감이나 만족감을 보다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83과 .72이었다.

##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Rhee(2012)가 개발한 초등학교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자녀에게 친밀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수용적인 양육을 의미하는 온정(9문항), 자녀를 지도할 때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설명해주는 양육인 논리적 설명(10문항), 자녀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거나 지시하는 행동 또는 비난하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개입(9문항),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 체벌이나 벌을 주는 행동을 의미하는 강압(7문항), 자녀를 적절하게 보호하거나 돌보지 않는 비양육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방임(10문항) 등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예를 들면, 온정은 ‘아이에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한다.’ 등의 문항을, 논리적 설명은 ‘아이에게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등의 문항을, 개입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한다.’ 등의 문항을, 강압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찔쩍

때린다.’ 등의 문항을, 방임은 ‘아이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측면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하위요인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임 요인의 10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2문항을 제거하고 8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한국의 경우 온정이 .90, 논리적 설명이 .93, 개입이 .87, 강압이 .86, 방임이 .76이었고, 일본의 경우 온정이 .85, 논리적 설명이 .93, 개입이 .90, 강압이 .84, 방임이 .69이었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한국의 인천시와 일본의 나고야시에 위치한 각 1곳의 초등학교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학교장의 동의하에 실시되었다. 1~3학년 각 학년마다 3학년씩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각 9학급씩 총 18학급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질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각 담임교사에게 질문지 배부 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뒤, 아동 편에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한국에서는 배부된 290부의 질문지 가운데 177부(61.0%)가 회수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배부된 280부의 질문지 가운데 120부(42.9%)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의 질문지(한국: 11부, 일본: 8부)를 제외하고 총 278부, 즉 한국과 일본 각각 166부와 112부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한국과 일본 표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chi^2$ )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및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과 일본 표본 각각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v-to-z transformation을 사용하여 양국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이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과 일본 표본 각각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각각 10이하(1.113~2.005)와 .01이상(.495~.898)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Berry & Feldman, 1985).

## III. 결과분석

### 1.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서의 차이

한국과 일본 어머니 간에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2). 첫째, 어머니

<Table 2> Differences in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parenting behavior betwee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N = 278)

	Korean (n = 166)		Japanese (n = 112)		t
	M	SD	M	SD	
Parenting stress	1.80	.34	1.64	.36	3.83***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2.94	.34	2.72	.30	5.30***
Parenting behavior					
Warmth	3.11	.46	2.99	.46	2.06*
Reasoning	3.17	.43	3.26	.47	-1.49
Intrusiveness	2.24	.47	2.37	.54	-2.22*
Coercion	1.76	.48	1.68	.51	1.22
Neglect	1.10	.21	1.03	.11	3.63***

\* $p < .05$ . \*\*\* $p < .001$ .

의 양육스트레스는 양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t = 3.83, p < .001$ ),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서도 양국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t = 5.30, p < .001$ ), 한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에 비해 양육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경우, 온정( $t = 2.06, p < .05$ ), 개입( $t = -2.22, p < .05$ ), 그리고 방임( $t = 3.63, p < .001$ )에서 양국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한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온정이나 방임은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반면, 개입은 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 2.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1)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3). 그 결과,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경우 모두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온정(한국:  $r = -.56, p < .001$ , 일본:  $r = -.47, p < .001$ ) 및 논리적 설명(한국:  $r = -.45, p < .001$ , 일본:  $r = -.26, p < .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개입(한국:  $r = .44, p < .001$ , 일본:  $r = .50, p < .001$ ), 강압(한국:  $r = .37, p < .001$ , 일본:  $r = .42, p < .001$ ), 그리고 방임(한국:  $r = .18, p < .05$ , 일본:  $r = .39, p < .0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양국 어머니들은 모두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에게 온정이나 논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 양육은 덜 보인 반면, 개입이나 강압,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은 더 많이 보였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가 양국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z = -1.86 \sim -0.48, p > .05$ ).

2)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Table 3> Correlations among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parenting behavior i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N = 278)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arenting behavior				
			Warmth	Reasoning	Intrusiveness	Coercion	Neglect
Parenting stress	-	-.58***	-.47***	-.26**	.50***	.42***	.39***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68***	-	.43*** <sup>a</sup>	.26**	-.33***	-.24*	-.20*
Parenting behavior							
Warmth	-.56***	.61*** <sup>a</sup>	-	.49***	-.39***	-.41***	-.28**
Reasoning	-.45***	.44***	.61***	-	-.07	-.11	-.27**
Intrusiveness	.44***	-.40***	-.43***	-.27***	-	.57***	.20*
Coercion	.37***	-.31***	-.41***	-.37***	.53***	-	.21*
Neglect	.18*	-.19*	-.18*	-.13	.00	.20*	-

Note: Correlations above the diagonal are for Japanese mothers (N = 112); Those below the diagonal are for Korean mothers (N = 166).

<sup>a</sup> Two correlation coefficients obtained betwee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5$ . \* $p < .05$ . \*\* $p < .01$ . \*\*\* $p < .001$ .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3). 그 결과,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경우 모두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온정(한국:  $r = .61, p < .001$ , 일본:  $r = .43, p < .001$ ) 및 논리적 설명(한국:  $r = .44, p < .001$ , 일본:  $r = .26, p < .01$ )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개입(한국:  $r = -.40, p < .001$ , 일본:  $r = -.33, p < .001$ ), 강압(한국:  $r = -.31, p < .001$ , 일본:  $r = -.24, p < .05$ ), 그리고 방임(한국:  $r = -.19, p < .05$ , 일본:  $r = -.20, p < .05$ )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양국 어머니들은 모두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온정이나 논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 양육은 보다 많이 보인 반면, 개입이나 강압,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은 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의 양국 간 차이는 양육효능감과 온정 간의 관계에서만 발견되어( $z = 2.01, p < .05$ ), 한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에 비해 양육효능감과 온정 간의 관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 3)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3). 그 결과,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경우 모두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한국:  $r = -.68, p < .001$ , 일본:  $r = -.58, p < .0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양국 어머니들은 모두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양육효능감을 낮게 지각

하였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가 양국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z = -1.35, p > .05$ ).

### 3.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Baron과 Kenny(1986)의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하고, 독립변인이 매개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하며, 매개변인이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경우 모두 모든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가 이에 부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 1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모형 2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모형 3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 때, 독립변인이 이전 모형에 비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온정, 논리적 설명 및 개입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이 발견되었으며, 일본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온정 간의 관계에서만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이 발견되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와 온정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 어머니의 경우 모형 1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68, p < .001$ ), 모형 2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56, p < .001$ ). 모형 3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양육효능감은 온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43, p < .001$ ),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이전 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만을 투입하였을 때보다 감소하였다( $\beta = -.56, p < .001 \rightarrow \beta = -.27, p < .01$ ).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통해 온정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4.79, p < .001$ ). 즉, 한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온정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일본 어머니의 경우에도 모형 1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58, p < .001$ ), 모형 2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47, p < .001$ ). 모형 3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양육효능감은 온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4, p < .05$ ),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이전 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만을 투입하였을 때보다 감소하였다( $\beta = -.47, p < .001 \rightarrow \beta = -.33, p < .01$ ).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통해 온정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2.26,$

<Table 4>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warmth from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i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 $\beta$ ) (N = 278)

	Korean (n = 166)			Japanese (n = 112)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Parenting stress	-.68***	-.56***	-.27**	-.58***	-.47***	-.33**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Warmth	Warmth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Warmth	Warmth
			.43***			.24*
$R^2$	.46	.32	.42	.34	.22	.26
Adj $R^2$	.45	.31	.41	.33	.21	.24
$F(df)$	138.26*** (1, 164)	75.41*** (1, 164)	57.70*** (2, 163)	56.31*** (1, 110)	30.72*** (1, 110)	18.78*** (2, 109)

\* $p < .05$ . \*\* $p < .01$ . \*\*\* $p < .001$ .

<Table 5>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reasoning and intrusiveness from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in Korean mothers ( $\beta$ ) (N = 166)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Reasoning	Reasoning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Intrusiveness	Intrusiveness
Parenting stress	-.68***	-.45***	-.27**	-.68***	.44***	.31**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26**			-.19*
$R^2$	.46	.20	.23	.46	.19	.21
Adj $R^2$	.45	.19	.23	.45	.19	.20
$F(df)$	138.26*** (1, 164)	40.73*** (1, 164)	24.92*** (2, 163)	138.26*** (1, 164)	39.28*** (1, 164)	21.98*** (2, 163)

\* $p < .05$ . \*\* $p < .01$ . \*\*\* $p < .001$ .

$p < .05$ ). 즉, 일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온정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Table 4).

둘째, 양육스트레스와 논리적 설명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한국 어머니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Table 5). 모형 1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68, p < .001$ ), 모형 2에

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논리적 설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45, p < .001$ ). 모형 3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양육효능감은 논리적 설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6, p < .01$ ), 이전 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만을 투입하였을 때보다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beta = -.45, p < .001 \rightarrow \beta = -.27, p < .01$ ).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통해 논리적 설명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2.67, p < .01$ ). 즉, 한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논리적 설명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와 개입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또한 한국 어머니의 경우에서만 유의하였다(Table 5). 모형 1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68, p < .001$ ), 모형 2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개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44, p < .001$ ). 모형 3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양육효능감은 개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19, p < .05$ ), 이전 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만을 투입하였을 때보다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beta = .44, p < .001 \rightarrow \beta = .31, p < .01$ ).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통해 개입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1.96, p < .05$ ). 즉, 한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개입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과 일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롯하여,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양국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서의 차이와 관련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 가운데 온정, 개입 및 방임에서 한국과 일본 어머니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보고하였는데,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들 중 하나인 부모부적격감을 높게 보고한 연구결과(Tarami et al., 2004)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은 뿌리깊은 유교문화의 잔존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사회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유교가 일원적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강하게 군림했던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는 여러 종교나 도덕윤리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영향력이 약한 편이다(Kim & Hwang, 2010). 또한,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녀양육지원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어(Jin, 2010),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 어머니들은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 어머니들에 비해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나, 한국 어머니(1.80점)와 일본 어머니(1.64점) 모두 양육스트레스의 수준 자체는 낮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의 경우에도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양육의식을 비교한 연구결과들을 지지

한다. 즉, 취학 전 자녀를 돌보는 한국 양육자들은 일본 양육자들보다 양육에서 보람을 보다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며(Hosoi, Furuhashi, Hata, Miyagi, Yoshikawa, Hayashi, Hwang, Suh, Nam, & Song, 2010), 동아시아 5개 도시의 양육의식을 비교한 조사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보다 자녀가 상당히 잘 성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Benesse research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2010).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을 통해 보람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자녀가 잘 자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기초로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 즉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둘 다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 부모들이 일본 부모들보다 부모의 주요 관심사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기대 또한 높으며 동시에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도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Hyun, 2005)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에 비해 부모역할과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으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우리라 사료되며, 이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도 높다는 점이 흥미롭다.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보다 양육행동 가운데 온정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 한국 아동들이 일본 아동들보다 어머니를 더 온정적이라고 지각한 연구결과(Jeong, 1992)와 유사하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

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자신의 부모에 대해 보다 애정·수용적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Tarami et al., 200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가족구성원에 대해 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Choi & Yu, 1994)를 재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와 보다 끈끈한 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행동 요인들 가운데 개입과 관련하여, 한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개입을 덜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간에 어머니의 기대·간섭적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않은 연구결과(Jeong, 1992)와 불일치한다. 또 다른 관련 연구가 드물어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불일치는 자녀의 발달단계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 즉,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반면, Jeong(1992)은 초등학교 고학년, 즉 학령 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방임을 보다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한국과 일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방임적 양육행동을 비교한 연구들이 드물어 본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결과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 어머니들이 베트남 어머니들보다 유아기 자녀에게 무시·무관심한 태도를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Pham, 2008)를 보건대,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동일한 동양문화권 내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도 문화에 따라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 부모가 다른 인종과 비교했을 때 방임을 좀 더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Choi,



2008)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한, 자신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타인의 영역에 들어갈 때 일일이 양해를 구하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을 보건대(Hong, 2010),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일본 어머니들이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녀의 행동을 더 간섭하고 지시하며 덜 방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놀고 난 뒤에 정리하기 등과 같은 예절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가 한국 부모들에 비해 일본 부모들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Koo, 2012)와도 일맥상통한다.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방임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나, 양국 모두 방임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둘째,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국 어머니 모두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학령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게 온정이나 논리적 설명은 덜 보이는 반면, 개입이나 강압 및 방임은 보다 많이 보였다. 다시 말해, 어머니들이 일상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 때 자녀에게 친밀하고 애정을 표현하거나 자녀를 지도할 때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설명해주는 것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은 덜 보이나, 자녀의 행동에 일일이 간섭하거나 신체적인 처벌을 사용하거나 자녀를 적절하게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와 일본의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즉, 한국과 일본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온정이나 애정, 합리적 지도 등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덜 나타내는 반면(Kim & Doh, 2004;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Shin, 2011; Son & Park, 2011), 통제, 제재, 강압, 방임, 학대 등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더 많이 보였다(Iwatate & Kurata, 1995;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Nakaya & Nakaya, 2006; Park & Ko, 2003; Shin, 2011; Shin & Chung, 1998; Son & Park, 2011).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양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문화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가 학교라는 공교육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서 학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크고 작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우므로, 어머니가 자녀를 보다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국 어머니 모두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령 초기 자녀에게 온정이나 논리적 설명은 보다 많이 보이는 반면, 개입이나 강압 및 방임은 덜 보였다. 이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한국 어머니의 경우가 일본 어머니의 경우에 비해 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영유아기나 학령기 자녀에게 온정이나 애정, 합리적 지도 등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나타내고, 거부, 복종, 통제, 제재, 강압, 방임 등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덜 나타낸다고 보고한 국내와 일본의 연구결과들(Ahn & Park, 2002; Choe, 2006; Kim & Doh, 2004; Kim et al., 2013; Kim & Lee, 2011;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Shin & Chung, 1998; Tasaka, 2003)과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어머니들이 자녀를 잘 훈육할 수 있다고 여기며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때,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거나 합리적인 규칙과 이유를 설명하여 자녀를 지도하는 것과 같은 바람직한 양육행동은 증가하는 반면, 자녀의 행동을 지시 또는 비난하거나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고향을 지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일본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던 점은 매우 흥미롭다. 아동의 긍정적 발달결과와 관련하여 특히 부모의 온정적 혹은 애정적 양육행동이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Kang, 2009; Lee & Choi, 2003)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어머니의 경우 양육효능감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국 어머니 모두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양육효능감은 낮게 지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국내 연구결과들(Choe, 2005; Ha & Seo, 2010; Kim & Doh, 2004;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Ryu et al., 2009; Shin & Chung, 1998; Song & Kim, 2008; Song et al., 2007; Yi & Choi, 2010)과 일치한다. 또한, 출산 후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일본 어머니들이 모유수유 양육부담감(burden of breastfeeding)이 높을 때 낮은 모유수유 양육효능감(breastfeeding self-efficacy)을 보였다는 일

본의 연구결과(Yamasaki et al., 2010)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부적 관련성은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므로,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양국의 어머니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고통,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적 특성을 다루면서 느끼는 어려움 등이 높을 때 자녀양육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부모의 역기능적인 신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지적 접근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어머니가 부모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공통점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경우 모두 양육스트레스와 온정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양국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온정적 양육행동을 덜 보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었고, 이는 낮은 온정적 양육행동으로 연결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정 및 반응성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한 국내 연구결과들(Kim & Doh, 2004; Kim & Moon, 2005)이나 어머니의 정서적 고통과 반응성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한 국외 연구결과(Gondoli & Silverberg, 1997)와 유사하다. 양국 간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한국 어머니의 경우에만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온

리적 설명 및 개입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는 논리적 설명이나 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지도 또는 권위주의적 통제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국내 연구결과들(Kim & Doh, 2004; Kim & Moon, 2005)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비교문화적 연구가 극히 드물어,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비교·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한국과 일본 모두 강압이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보다는 온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의 경우에 더 많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양육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 같은 부모의 인지적 특성들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비교문화적 관점의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비교해 볼 때, 양국 간에 각 변인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변인들 간의 관계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이 지니는 서로 다른 가치나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각 문화에 따라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은 다소 다를지라도, 그 관계의 양상은 문화에 상관없이 상당히 유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높이기 위해 문화에 관계없이 이 시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근거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어머니 자신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보고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보고자의 주관적 관점으로 인해 결과가 다소 왜곡되었을 수 있으며, 모든 연구변인들을 동일한 보고자에 의해 조사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나 아동과 같은 다양한 보고자를 통해 각 변인을 조사하거나 면접법이나 관찰법과 같은 다양한 조사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모든 연구변인들을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하였으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의 표집이라는 조사방법의 특성상 양국에서 한 도시씩을 선정하여 소수의 연구 참가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추후 비교문화연구에서는 양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보다 광범위한 표본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각 변인에서의 문화적 차이만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이러한 양육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국가 간에 비교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

에 그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변인들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국내 선행 연구들이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학부모 역할을 새로이 수행하기 시작하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훈련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교문화연구가 부족했던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 References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hn, J. Y., & Park, S. Y. (2002).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 53-68.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nesse research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2010). *A survey of early children's life in five East Asian cities*. Tokyo: Benesse research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 Berry, W. D., & Feldman, S. (1985).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Beverly Hills, CA: Sage.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e, H. S. (2005).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4), 111-123.
- Choe, H. S. (2006). The mediational role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The effects of parenting related variables on chil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11), 79-89.
- Choi, J. B. (2008). Korean parents' perceptions of child neglect. *Dongkwang, 104*, 1-39.
- Choi, S. C., & Yu, S. Y. (1994). A psychological,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s' 'Cheong' and Japanese's 'Ninjo'. *Journal of Humanities, 21*, 139-170.
- Choi, S. Y., Kim, E. J., Ryu, E., Chang, K. O., & Park, M. N. (2012). Postpartum depression and parental self-efficacy: A comparison of native Korean and Vietnamese immigrant mothers in Korea.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3*(2), 181-187.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iao, L.-J. (2011).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Chinese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al expect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 Dunning, M. J., & Giallo, R. (2012). Fatigue, parenting stress,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in mother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30*(2), 145-159.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9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Ha, J.-Y., & Seo, S.-J. (2010).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 and maternal parenting variables on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2), 151-168.
- Ha, Y. M., & Park, S. Y. (2012).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mother's negative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styles on parenting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9*(2), 175-195.
- Hong, M. P. (2010). *A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verbal behavior and culture*. Seoul: Hankukmunhwasa.
- Hosoi, I., Furuhashi, K., Hata, K., Miyagi, Y., Yoshikawa, M., Hayashi, M., Hwang, S. H., Suh, H. J., Nam, M., & Song, Y. O. (2010). A comparative study between Japan and Korea on the issues and backgrounds of declining birth rate based on the research about the state and needs of child care and child support: Through the analysis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a city in Japan, Fukuoka, and cities in Korea, Daegu and Kyungsan. *Journal of the Faculty of Integrated Human Studies and Social Sciences, Fukuoka Prefectural University, 19*(1), 51-66.
- Hyun, J. H. (2005). A comparative study on conception of children,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condition of childre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parents. *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 9*(2), 163-180.
- Iwatate, K., & Kurata, Y. (1995).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behavior. *Annual Convention of the Japanese Association of Educational Psychology, 37*, 390.
- Jang, S. O., & Kim, Y. (2011). Effects of maternal rearing stress and burnout on their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s. *Research of Waldorf Education, 3*(1), 91-111.
- Jeong, H. H. (1992). A comparative study of perceived maternal rearing behavior by children in Korea and in Japan. *Research Journal of Dong-eui Univers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9*, 291-305.
- Jin, F. S. (2010). *A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n population policies: Focusing on fertility policies in Korea, China, and Japan*. Seoul:

- Youkrack.
- Jin, Y. C., & Jang, Y. A. (2013).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Korea and China.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4(1), 99-118.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Jung, D.-H., & Chi, S.-A. (2006). A case study on the process of children's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0(1), 207-227.
- Kang, H.-K. (2003). Parenting stress scale for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2), 31-38.
- Kang, N.-H. (2009). Relationship of parenting, emotional regulation and peer accept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R. H. (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value of childre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married women in the low fertility period. *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 9(2), 61-75.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1-39.
- Keller, H., Abels, M., Borke, J., Lamm, B., Lo, W., Su, Y., & Wang, Y. (2007). Socialization environments of Chinese and Euro-American middle-class babies: Parenting behaviors, verbal discourses and ethnotheo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3), 210-217.
- Kim, H.-J., & Chang, Y. E. (2013). The effect of employed mothers' quality of multiple ro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p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4), 593-607.
- Kim, H. M., & Doh, H.-S. (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79-298.
- Kim, M. (2008). An exploratory study of student's experience of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first grad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9(1), 181-210.
- Kim, M.-H. (1999). The relation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o social network and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J. (2008).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intervention program for aggressive young children: Focus on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and parent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J., Doh, H.-S., Shin, N., & Choi, M.-K. (2013). The effects of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2), 101-119.
- Kim, M. J., & Lee, K. N. (2011). Effects of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4), 253-271.
- Kim, M. S., & Moon, H. J. (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8), 25-35.
- Kim, N.-S., & Kim, M.-K. (2011). A comparative study of parents attitude, young child temperament, peer competence between Korean and Indonesian.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1(5), 149-170.
- Kim, T. Y., & Hwang, H. K. (2010). *Story of Japanese culture*. Seoul: Bogosa.
- Ko, H.-J.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first grader's adjustment in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 Koo, J. S. (2012). A comparative study on consciousness of parenting between Korean and Japanese parents: Focused on self-help ability and courtesy education. *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 17(1), 19-37.
- Lai, A. C., Zhang, Z.-X., & Wang, W.-Z. (2000).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in Hong Kong and Beijing Chinese families: A compar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5(1), 60-66.
- Lee, G., & Chung, H. (2008). Short-term longitudinal exploration on change processes of problem behaviors in early school aged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2), 97-118.
- Lee, I.-H., Park, J.-E., & Choi, S.-Y.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9(4), 81-91.
- Lee, J.-K., & Choi, S.-J. (2007). Relative potency of parenting styles of mother between Korea and Japan in predicting child's social moralit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6(2), 145-158.
- Lee, J. O. (2008).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others with infants and those with kindergarteners.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11, 41-61.
- Lee, S., & Choi, J. M. (2003). Influences of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and peer acceptance on children's self estee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2), 31-42.
- Lee, S., Lee, Y., & Kim, H.-J. (2008). The gendered pattern of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over adolescent children: A comparative analysi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2), 45-76.
- Lee, S. H., & Lee, J. Y. (2012).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Comparison among sub-scales of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2(1), 111-130.
- Lin, C. C., & Fu, V. R. (1990). A comparison of child-rearing practices among Chinese, immigrant Chinese, and Caucasian-American parents. *Child Development*, 61(2), 429-433.
- McLoyd, V. C., Kaplan, R., Hardaway, C. R., & Wood, D. (2007). Does endorsement of physical discipline matter? Assessing moderating

- influences on the maternal and chil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physical disciplin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2), 165-175.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73-78.
- Moon, H.-J. (1999). The influence of working moth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acy on the child-rearing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6), 97-107.
- Nakaya, N., & Nakaya, M. (2006). The effects of mothers' hostile attributions on child maltreatment. *The Japanese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2), 148-158.
- Ok, K.-H., Chung, K.-S., Chun, H.-Y., Hwang, H.-J., & Chi, C.-X. (2006). Korean and Yanbian Korean-Chinese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 study of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4), 25-36.
- Park, B. (2011). Relations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in Korean and Canadian toddl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I. A. (2012).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and Canad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Y., Jun, C. A., & Han, S. Y. (1996). Mother's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4), 203-215.
- Park, S. Y., & Ko, E. J. (2003). Infant day-care and family factors on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7), 91-106.
- Park, Y. Y., Choi, Y. H., & Park, I. J. (2002). Effects of mother's personality traits on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2), 71-88.
- Pham, P. M.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s: Comparison of Vietnam and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Pham, P. M., Lee, J.-H., & Shin, I.-S. (2007). A cross-cultural study on parenting attitudes of Vietnamese and Korean pare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6(2), 235-252.
- Ren, R.-X., & Hyun, O.-K. (2002).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Yanbian Korean-Chinese mother's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1), 23-37.
- Rhee, S. (2012).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scale' parents with school-age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Russell, A., Hart, C. H., Robinson, C. C., & Olsen, S. F. (2003). Children's sociable and aggressive behaviour with peers: A comparison of the US and Australia, and contributions of



-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1), 74-86.
- Ryu, K. J., Kim, Y. J., & Song, Y. S. (2009). Parenting stress with her infant and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of mother who commit their infants to child-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5(1), 1-23.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1), 15-27.
- Seo, S. (2004). Maternal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quality of parenti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4), 11-27.
- Shimizu, Y. (2004).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hildcare stress in mothers: From Korea (Kyonggi-do), China(Beijing), Brazil(Brasilia), and Japan(Shizuoka). *Japan Society of Maternal Health*, 45(2), 159-169.
- Shin, J.-Y. (2011). Relations among child's temperament,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practice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5(2), 291-312.
- Shin, S. J., & Chung, M. J. (1998).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1), 27-42.
- Son, Y.-J., & Park, S.-Y.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mother's personality.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8(2), 125-144.
- Song, M.-H., Song, Y.-S., & Kim, Y.-J. (2007).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elf-efficacy in early childhood mot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5), 165-183.
- Song, Y.-S., & Kim, Y.-J. (2008).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knowledge on parenting self-efficac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t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181-203.
- Suchman, N. E., & Luthar, S. S. (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4), 285-315.
- Suzuki, S., Holloway, S. D., Yamamoto, Y., & Mindnich, J. D. (2009). Parent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30(11), 1505-1526.
- Tarami, Y., Minami, K., & Lee, S. (2004). A comparative study on Japanese and Korean maternal stress(1): A comparison of factors related to stress between Japan and Korea. *Annual Convention of the Japanese Association of Educational Psychology*, 46, 606.

- Tasaka, I. (2003).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elf-efficacy scale. *Kona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ies in Human Sciences, 1*, 1-10.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 Wu, P., Robinson, C. C., Yang, C., Hart, C. H., Olsen, S. F., Porter, C. L., Jin, S., Wo, J., & Wu, X. (2002).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mothers' parenting of preschooler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6), 481-491.
- Yamasaki, M., Iriyama, S., Hamasaki, M., & Honda, Y. (2010). The relationships between sense of coherence, breastfeeding self-efficacy and burden of breastfeeding among mothers with early confinement periods. *Health Science Research, 22*(2), 45-50.
- Yi, J. S., & Choi, Y. H. (2010).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3*(1), 19-32.
- Yoon, J.-W., & Cho, H.-H. (2011). Structural modeling of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7*(2), 111-119.
- Zhang, J. (2011).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ild-rearing attitudes among Korean and Chinese mothers with one child.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9*(1), 21-37.

---

Received February 28, 2014  
Revision received May 12, 2014  
Accepted May 27, 2014